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증-03863호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14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음력 5월 4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한라포커스 해저 쓰레기장 전락한 제주항 <상>

공업용수 가능 수질 3등급을 활어차가 물로 사용

서부두 내항 폐타이어 등 온갖 폐기물 가득
선박세척시 인체유해 오염물질 앞바다 유입
당국 근본 해결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 일관

제주항 서부두 내항이 온갖 폐기물로 신음하는 가운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십개의 취수파이프가 바닷속에 잠겨 있다. 고대로기자

제주시 제주항 서부두 내항이 해저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서부두 내항. 항내 정박중인 선박 주변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 있었고 음료수 캔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 각종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12일 오후 3시. 간조시간대 항내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자 바다 속에 있던 온갖 폐기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어선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타이어를 비롯해 자전거 바퀴, 나무상자, 폐사어, 빈병과 비닐, 포대, 플라스틱 등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했다.

이 중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의 미세 입자들은 지렁이나 어류등의 몸에 들어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부두 횟집 인근 선박수리소에서 고압세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유해 물질도 여과없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었다.

서부두 횟집 뒤편 물양장에는 수십개의 바닷물 취수관이 얽혀져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이곳 일부 횟집에서는 이 취수파이프를 통해 바닷물을 끌어 올리고 있다. 취수한 바닷물은 물양장에 설치된 모래여과장치를 통해 정화를 거친후 사용하고 있다. 도내 활어 수송차들도 제주항 내항의 오염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 퇴적물을 수거처리하고 저서환경 복원이 필요하지만 오염된 해양폐기물 정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와 제주자치도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 내항의 수심이 낮아 퇴적물을 수거하는 우리배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제주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받아 퇴적물 수거에 나설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제주항 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 80t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며 "바닷속 쓰레기 수거인 경우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 함에 따라 상시 수거는 어렵지만, 해양쓰레기가 많이 쌓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환경전문가 류성필 박사는 "해양퇴적물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생물에 축적될 경우 해양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바다 오염퇴적물에서는 트리부틸주석과 아연, 납, 비소 ,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며 "제주항 내항은 3등급 수질해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 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06년 해역별 수질등급 평가에서 3등급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3등급 수질해역은 공업용수나 선박의 정박정도만 이용이 가능하다.

고대로·이태윤 기자

도의회 주민참여 조례안 개정 처리 '난항'

주민자치 단체 등 반발 회견… 조례제정 중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대폭 수정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조례 개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행자위를 규탄하며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를 '읍·면지역 원탁회의 운영 조례'로 바꿔 수정 가결한 지 하루만이다.

이들은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이며 이미 논란이 야기됐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에만 구성하도록 하고 '동'을 제외시켰다. 이는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하고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며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어촌민박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농어촌민박 현황은 5월말 기준 제주시 2912개소, 서귀포시 1560등 총 4472개소다.

이번 안전점검은 농어촌민박 200개소(제주시 100, 서귀포시 100)를 대상으로 한 표본점검형태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의 점검,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가스·전기시설 점검 여부 등이다. 이태윤기자

오늘 오후부터 최대 120㎜ 25일까지 강한 바람 동반

제주지역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24일부터 시작돼 25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는 120㎜까지 내리고,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오전(6시)부터 25일 오후(3시)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4일 낮 12시부터 자정 사이에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와 산지 등 많은 곳은 120㎜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크겠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이다.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0~16m, 그 밖의 지역에서도 9~14m로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해상에서도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미숙기자

7~9월 기온은 평년보다 1~1.5℃ 높아 폭염 늘듯

제주지방기상청은 3개월(7~9월) 전망을 통해 기온이 평년보다 1~1.5℃ 높고, 7~8월엔 폭염일수가 많겠다고 23일 밝혔다.

7월에는 중순부터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이 상승해 월평균기온은 평년(25.7℃), 작년(24.7℃)보다 0.5~1.5℃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8월은 평년(27℃), 작년(27.4℃)보다 1.0~1.5℃ 높고, 열대야로 무더운 날도 많겠다. 9월에는 평년(23.5℃)보다 0.5~1.0℃ 높고, 작년(24.1℃)과 비슷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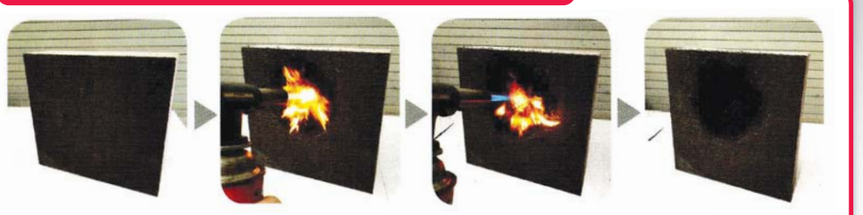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7월은 비슷하고, 8월은 비슷하거나 적고, 9월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중호우 경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문미숙기자

불에 타지않는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준불연 스티로폼 쉘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쉘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쉘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표면 탄소화 수축과 변형이 없음 5분후 표면탄소화층 화염을 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연소 후

쉘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